

[목포권]

서남해 조기잡이 ‘풍어 속 빙곤’

7석 1상자당 5만원대…작년보다 3만~4만원 하락

유류 등 원자재값 폭등…만선에도 1천여만원 적자

전남 서남해 조기잡이가 풍어를 이루고 있으나 가격하락으로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목포수협에 따르면 지난해 조기 7석(20cm급) 1상자에 8만~9만원에 판매됐으나 올해는 5만원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유류와 어구 등 원자재값은 폭등한 반면 수익성 낮은 씨알 작은 조기들이 전체 어획고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지난 봄 저장됐던 조기

들이 시장으로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가격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유류 가격은 9월 기준 2005년 1드름에 9만8천 920원이었으나 지난해 10만5천40원으로 올랐고 올해는 19만 860원으로 2005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인상됐다.

또 어구 가격도 40% 가량 인상돼 조기 풍어에도 불구하고 적자 조업이 지속되고 있다.

어민들에 따르면 64t급 조기잡이 어선이 15일간 조업으로 만선의 어획고를 올렸을 경우 4천여만원의 위관고를 물리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와 유류, 열음, 상자 구입비, 육상작업비, 부식 등 15일간 조업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5천여만원으로 1천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유기방협회 관계자들은 “어민들이 만선을 해도 오히려 한숨을 내쉬고 있다”며 유풀해 했다.

수산업 관계자들은 조기 씨알이 적은 원인에 대해 조기들이 서남해로 이동하는 환로인 동중국해 등에서 과다한 남획이 이뤄진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기잡이 용 그물 크기를 확대하거나 금어기를 놀리는 등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영암으로 이전한 해군 제3함대 사령부가 24일 창설 62주년을 맞았다.

부산→영암 이전 해군 3함대사령부

창설 62주년 한마음 체육대회

해군 제3함대 사령부(사령관 구옥희)가 24일 창설 62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장병 단합을 위한 한마음 체육대회를 가졌다. 1946년 부산기지사령부로 창설된 3함대사령부는 지난 2007년 11월 15일 작전 수행능력 강화와 효율적인 부대 운영보장을 위해 부산에서 영암군으로 이전했다.

3함대사령부는 제주도를 포함한 경상도와 전라도에 이르는 해군 작전역의 47%에 해당되는 광활한 해역의 방어는 물론 남방 해상보안의 해상교통을 보호할 목표를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3함대는 6·25전쟁 당시 대한해협전 승전을 비롯해 거둔 도, 대포, 여수 등에 침투한 간첩선과 반잠수정을 격침시

킨 ‘상승(常勝)’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또 태안 해역 기름 유출사고 시 전남도내 도서지역 및 해안지역 타르제거 활동을 비롯해 대민지원, 사회복지시설 및 독거노인 봉사활동, 해군 군악연주회, 함정공개행사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주민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구역회 소장은 부대창설 기념사에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3함대를 만들기 위해 피와 땀으로 희생하신 선배 전우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3함대원으로서 강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각자 맡은 바 임무완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목포=이상선기자 lsh@

체험과 학습으로 만나는 신나는 ‘에너지 체험전’

목포자연사박물관 26일부터

목포자연사박물관이 한국원자력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찾아가는 에너지 체험전’을 26일부터 2주간 개최한다.

에너지 체험전은 미래 에너지 ‘원자력’을 주제로 일반적인 전시 품 관람이 아닌 직접 참여보기,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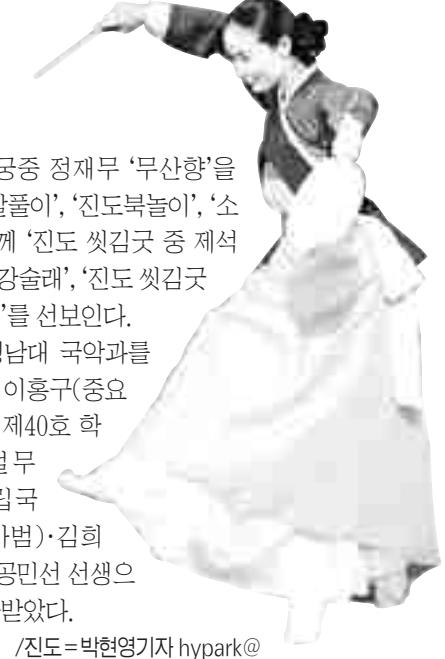
주요 전시 내용은 ‘에너지와 기후변화’, ‘방사선 이용분야’, ‘미래의 청정에너지’ 등이며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에너지 전으로 타기 맞추기’, ‘행복에너지 동화 읽기’, ‘에너지 과학퀴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춤으로 가는 진도 여행’

서 최씨는 궁중 정재무 ‘무산향’을 시작으로 ‘살풀이’, ‘진도복놀이’, ‘소고 춤’과 함께 ‘진도 씻김굿 종 제석굿’, ‘진도 강강술래’, ‘진도 씻김굿 종 이슬털기’를 선보인다.

최씨는 영남대 국악과를 졸업했으며 이홍구(중요 무형문화재 제40호 학연화대합설무 보유자·국립국악원 원로사범)·김희숙·이노연·공민선 선생으로부터 사사받았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남도국악원 수석단원 최선희씨

30일 서울 국립국악원 무대 올라

서울에서 진도의 무형예술을 선보이는 무대가 마련된다.

국립 남도국악원 무용부 수석단원 최선희(시진)씨의 개인 무대가 오는 30일 저녁 7시 30분 서울 국립국악원 우연당 무대에 올려진다.

이번 공연은 국립 국악원이 무형 문화재 무대종목 공연으로 진행하고 있는 학요 상설공연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춤으로 가는 진도 여행’을 타이틀로 한 이번 공연에

“신안 새천년대교 왕복 4차선 건설을”

목포상의 “장기 교통수요 감안해야” 중앙부처에 건의

목포상공회의소(회장 주영순)가 24일 정부 30개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된 신안 암하와 암태를 연결하는 연도교 ‘새천년대교’의 도로 폭을 왕복 4차로로 건설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목포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압해도를 포함한 9개섬, 일명 ‘다이아몬드제도’를 국제 수준의 해양제자 거점으로 만드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으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압해도 조선타운 조성, 그리

고 현재 공사 중인 주변 연륙·연도교 개통되면 섬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육로 이동이 대폭 증가할 것인 만큼 4차선으로 건설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목포상의는 “새천년 대교에서 바라는 주변의 청정해역과 다도해의 수려한 경관이 일품일 뿐 아니라 예술적 조형미까지 가미된다면 하나의 관광상품이자 서남해 연륙·연도교의 랜드마크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경제성을 운운하기

보다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와 전남의 해양관광산업 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등 거시적 안목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새천년대교는 목포와 연륙된 신안군 암해면 송곡리에서 암태면 신석리까지 전체연장 16.4km 중 도로 9.17km, 해상 교량 7.23km로 6천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2010년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그러나 왕복 4차로로 할 경우 5천억 원 가량이 더 듣는다면 정부 심의과정에서 2차로로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무안기업도시내 한중국제산단 토지보상·분양·공사감리 담당



전남개발공사 한중사업단 개소

부안기업도시 내 한중국제산단지의 보상업무 등을 담당할 전남개발공사 한중사업단이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전남개발공사는 5% 지분인 77억 원을 출자, 공동시행자로 한중국제산단지에 들어온다. 토지보상 및 분양, 공사감리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부안군은 한중국제산단지개발(주)로부터 보상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개발계획 승인 이후 주민보상설명회, 주민보상협의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뒤 전남개발공사와 공동으로 보상업무를 맡게 된다.

그동안 일부 국내 주관사의 사업부 팀 철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중국제산단지는 무안군 무안읍, 청계면, 현경면 일원 17.72㎢에 1

조 7천28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오는 2012년까지 택지개발 및 분양을 완료하고 2025년까지 7만 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자족형 복합기업도시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최근 농림부와 협의가 완료돼 앞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까지는 국토해양부의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안=대성수기자 dss@

목포에 도내 첫 ‘노인 직업훈련센터’

영해동 하나노인복지관 3층

훈련실·공동 작업장 등 갖춰

목포시 ‘노인 직업훈련센터’가 24일 문을 열었다.

전남지역 최초로 개설된 노인 직업훈련센터는 목포시 영해동 하나노인복지관 3층에 153㎡ 규모로 취업훈련실, 공동작업장, 공동생활 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등을 갖추고 있다.

이 센터는 2011년 8월까지 3년 동안 취업 수요 조사, 맞춤형 취업교육 훈련, 상담과 취업알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목포시는 노인직업 훈련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 보다 많은 고령 주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목포=임영준기자 lyc@

先 3·3 日報 지사안내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동부취재본부	(061) 908-8111	목 포	(061) 276-9200	나주시	(061) 332-5544
여 수	(061) 653-8444	강 진	(061) 434-6830	나주군	(061) 332-7764
광 양	(061) 792-8111	무 안	(061) 452-8535	담 양	(061) 383-8111
순 천	(061) 746-8111	신 선	(061) 243-3758	영 암	(061) 473-2340
고 총	(061) 842-2121	원 도	(061) 554-6677	장 성	(061) 392-2100
구 레	(061) 783-8111	영 광	(061) 351-0055	황 흥	(061) 863-8822
곡 성	(061) 362-8111	진 도	(061) 543-0100	화 순	(061) 374-4423
보 성	(061) 853-1190	해 남	(061) 534-5151	광 산	(062) 944-0444

남구 병영동 21/202 1층(한국전쟁 기념관)

한국전쟁기념관

한국전쟁기념관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당시 전쟁 참전용사 10만명과 전쟁 참전민 10만명을 기리는 전시관이다.

한국전쟁기념관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당시 전쟁 참전용사 10만명과 전쟁 참전민 10만명을 기리는 전시관이다.

한국전쟁기념관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당시 전쟁 참전용사 10만명과 전쟁 참전민 10만명을 기리는 전시관이다.

한국전쟁기념관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당시 전쟁 참전용사 10만명과 전쟁 참전민 10만명을 기리는 전시관이다.

한국전쟁기념관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당시 전쟁 참전용사 10만명과 전쟁 참전민 10만명을 기리는 전시관이다.

한국전쟁기념관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당시 전쟁 참전용사 10만명과 전쟁 참전민 10만명을 기리는 전시관이다.

한국전쟁기념관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당시 전쟁 참전용사 10만명과 전쟁 참전민 10만명을 기리는 전시관이다.

한국전쟁기념관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당시 전쟁 참전용사 10만명과 전쟁 참전민 10만명을 기리는 전시관이다.

한국전쟁기념관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당시 전쟁 참전용사 10만명과 전쟁 참전민 10만명을 기리는 전시관이다.

한국전쟁기념관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당시 전쟁 참전용사 10만명과 전쟁 참전민 10만명을 기리는 전시관이다.

한국전쟁기념관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당시 전쟁 참전용사 10만명과 전쟁 참전민 10만명을 기리는 전시관이다.

한국전쟁기념관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당시 전쟁 참전용사 10만명과 전쟁 참전민 10만명을 기리는 전시관이다.

한국전쟁기념관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당시 전쟁 참전용사 10만명과 전쟁 참전민 10만명을 기